

# 자신을 돌이켜보지 않고 무엇을 밖에서 구하는가

인경 스님의 <수심결> 특강 ④

## 화두의 본질

### 문제 회피

회피란 일반상담에서 자신의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 직면을 피하는 것이다. 화두참구에서도 이와 유사한 회피가 일어난다. 화두참구에서 믿음·분심·의심하기를 강조한 것은 이런 회피를 방지하고 화두에 곧장 직면하기 위함이다. 이것은 화두가 긴장감을 만들고 답답함을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당신은 누구인가? 당신의 본래면목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처음 접한 이들은 당황하고 난감해한다.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 앞에서 어렵다고 골목 당회 회피하기 쉽다. 이것은 자신에게 익숙한 기존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에서 기인한다. 이곳에 어떤 계기가 필요하다. 지금까지의 방식과는 다른 급진적인 어떤 패러다임의 변화가 요청된다. 그렇지만 이것은 절벽에서 떨어지는 경험과 같다. 이럴 때 내담자는 갑자기 다른 질문을 하면서 긴장감에서 회피한다. 일반상담에서 내담자는 고통스런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회피하는 경향이 있거나 부인하고 억압하는 경향이 있다. 그것은 인정하기가 고통스럽기도 하지만, 자신의 방어적인 성격이 드러날 수도 있다.

이런 회피의 사례는 선문답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가 있다. 예를 들면 마조와 무업과의 문답이다. 마조는 환절한 용모를 가진 무업을 보고 “커다란 법당인데 그곳에 부처가 없구나”라고 말했다. 이때 무업은 절하면서 “교학공부를 했지만, 선종에서 마음이 곧 부처라는 가르침은 이해할 수 없다”고 답했다. 이에 마조는 “알지 못하는 그 마음일 뿐, 다른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무업은 “달마대사가 서쪽에서 오시어 전한 심인(心印)은 무엇인가?”고 되물었다.

이것은 현재의 문맥에서 벗어난 다소 엉뚱한 질문이다. 묻는 그 마음에 직입하지 못하고 사랑분별하는 것이다. 문제의 본질에서 벗어나는 것, 회피이다. 이때 마조는 “다음에 다시 오게”하고는 무업을 돌려보냈다. 무업이 일어나 나가는 것을 마조가 다시 불렀다. “이보게, 무업이 고개를 돌리지 마, 마조가 물었다. “이것이 무엇인가?” 이 순간에 무업은 깨닫고 마조에게 절을 올렸다.

이런 상황에서 <수심결> 질문자의 경우는 ‘수행을 하면, 어떤 신통이 있는지’를 묻는다. 이것은 본질적이고 궁극적인 문제로서 화두(이것은 필경 무엇인가)에 대한 문제에서 신통변화라는 다른 문제로 이동한 것이다. 이는 분명하게 갈등과 긴장감에

서 오는 회피적 질문이다. 마치 무업이 갑자기 ‘달마대사가 전한 심인이 무엇인지’를 묻는 것과 같다. 명백하게 그 문답의 문맥과는 다른 내용을 묻는 것이다. 물론 이런 부분은 상담자로서도 충분히 이해되고 또한 필요한 일이다. 마조는 무업을 돌려보낸 다음에 다시 질문을 했다. 이번에는 매우 극적인 방편을 사용했다. 하지만 보조국사는 내담자를 진절하게 수용하면서, 깨달음의 돈오(頓悟)에 의지해 치열히 수행하는 점수(漸修)에 의해서 신통변화가 나타난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런 대답에 대해서 질문자는 다시 묻는다. 돈오면 점수가 아니고 점수라면 돈오가 아니다. 이들의 갈등을 어떻게 할 것인가?

### 회광반조의 직면

일반상담에서 내담자가 자기의 본질적인 문제에서 회피하고 혹은 다른 질문을 하면서 엉뚱한 방향으로 이끌고 갈 때, 상담자가 취할 수 있는 문제는 대개 4가지이다. 하나는 그 회피와 저항을 인정하고 공감하는 방법이다. 그러면 내담자는 여기서 어느 정도 지나면, 스스로 다시 자기의 문제로 되돌아온다. 두 번째는 회피하는 그 근본적인 이유를 통찰하도록 돕는다. 왜 그것을 접촉하지 못하고 회피하는지를 스스로 자각하도록 돕는 방법이다. 세 번째는 회피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경험내용을 다시 본래의 문제로 연결시켜서 다시 처음 과정으로 돌아오는 방법이다. 마지막은 내담자의 새로운 관심분야를 무시하는 방법이다. 보조국사는 세 번째의 방법을 사용했고, 마조는 마지막 방법을 사용했다.

이미 돈오라면 점수가 아닙니다. 점수라면 돈오가 아닙니다. 돈오와 점수의 관계를 설명해 주십시오.

자기의 신령스런 앎[靈知]이 참 부처임을 알지 못하고, 마음 밖으로 부처를 찾아 물결치는 대로 해매다가, 홀연히 선지식에 게서 들어갈 길을 지시받아 일순간에 빛을 돌이켜[一念廻光] 스스로 본래의 성품[本性]을 보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이 성품은 원래 번뇌가 없고 완전한 지혜의 성품[無漏智性]이 본래부터 스스로 다 갖추어져 있어, 곧 모든 부처와 더불어 필결판 같도 다르지 않다. 그러므로 돈오(頓悟)라고 한다. (중략) 점차 닦는다는 것은 비록 본래의 성품이 부처와 더불어 다르지 않음을 깨달았지만 시작이 없을 정도로

오랫동안 익혀온 습기(習氣)를 갑자기 단박에 없애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깨달음에 의지해서 닦고 점차 훈습하여 공능이 이루어지고 꾸준히 성태(聖胎)를 길러서 세월이 흘러 성인이 된다. 그러므로 점수(漸修)라고 한다.

여기서 내안의 불성·영성을 자각했지만, 오랫동안 익혀온 습기로 말미암아 장애를 단박에 없앨 수는 없기에, 깨달음에 의지하여 수행을 꾸준히 하여 성근 태(聖胎)를 길러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돈오의 과정을 보조국사는 회광반조(迴光返照)로서 설명한다. 다시 말하면 질문자의 관심을 본래의 문제, 처음 주제로 다시 되돌린 것이다. 회광은 밖으로 향하는 빛을 안으로 돌린다는 의미라면, 반조는 내면으로 돌아와서 돌이켜 비추어보는 일이다. (이것은 필경 무엇인가) 화두는 바로 이런 회광반조를 발생시키는 발문이 된다. 질문자가 새롭게 제기한 신통의 문제를 회광반조의 주제로 다시 바꿔준 것이다. 그럼으로써 본래의 자기성품의 고유함과 신령스런 앎을 순식간에 자각하도록 돕는 방식을 취한 것이다.

여기서 경험내용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긍정적 요소로서 텅 비어있음, 신령스러움, 온전함과 같은 영적인 부분이고, 다른 하나는 부정적 요소로서 번뇌, 습기와 같은 마음현상이다. 명상수행은 마음의 부정적인 습기에서 곧장 신령스러움을 경험하는 방법적, 혹은 과정적인 요소이다. 이것이 반조(返照)이다.

그런데 여기서 두 가지의 문제가 생겨난다. 하나는 화두와 반조의 관계이다. 다른 하나는 습기와 신령한 앎의 관계이다. 다음을 보자.

어떤 방편으로 한 생각을 기를에 돌리어 [一念廻機], 문득 자기 성품[自性]을 깨닫습니까?

다만 그대 스스로의 마음일 뿐이다. 다시 어떤 방편을 내겠는가?... (중략) 이미 자기의 눈인데, 눈을 다시 보려 하는가? 만약 눈을 잃지 않은 줄만 알면, 곧 눈을 보는 것이 된다. 다시 보려는 마음이 없으면 어찌 보지 못한다는 생각이 있겠는가? 자기의 신령스런 앎[靈知]도 또한 이와 같다. 이미 자신의 마음인데, 무엇을 다시 알려고 하는가? 만약 알려고 한다면, 더욱 알 수 없다. 다만 알 수 없음을 알면, 이것이 곧 성품을 보는 것이다.

제 분상에 의거하여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무엇이 ‘텅 비어 고요하고[空寂] 신령스런 앎[靈知]’의 마음입니까?



**믿음·분심·의심하기 강조는 회피 막고 화두에 직면 위함**  
**보조는 회피 경험 본래문제 연결**  
**반조 없는 화두 사랑분별 사구**

그대가 지금 나에게 묻는, 그것이 바로 그대의 텅 비어 고요하고 신령스런 앎의 마음이다. 어찌하여 돌이켜 비추어[返照] 보지 않고 도리어 마음 밖에서 찾는가?... (중략)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상에서, 듣거나 보고 있거나 말하고 화내거나 즐거워하고 울거나 그러거나 하는 갖가지의 행위와 동작을 하는데, 말해보라. 필경 누가 이렇게 운전하고 행위하는가?

여기서 보조국사는 일상에서 보고 듣거나 즐겁고 화내는 마음현상이 모두 텅 비인 본성, 신령한 앎, 영성의 작용이라고 말한다. 조사선에서 ‘평상의 마음이 그대로 도(平常心是道)’라는 주장과 상통한다. 일상의 마음과 영적인 마음이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마조화상이 그랬던 것처럼, 지금 현재에 묻고 대답하는 이것이

그대로 공적이고 영지라고 말한다. 불성은 이 마음을 떠나서 별도로 존재하지 않기에, 다른 방편이 필요가 없다. 그렇기에 번뇌의 마음과 신령한 진여의 마음은 서로 다르지 않다. (기신론)의 입장에서 다시 보면, 생멸심(生滅心)이나 진여심(眞如心)이나 모두 한 마음[一心]이다. 이들은 두 개로 나누어진 마음이 아니다.

하지만 일상에서 양자를 통합하는 일은 결코 쉽지가 않다. 생멸·진여의 마음은 하나이지만, 양자는 서로 분리돼 별개처럼 작용한다. 생멸이면 진여가 아니고 진여이면 생멸이 없다. 이들 양자를 통합하는 것이 바로 반조이다. 우리는 반조를 통해서 신령한 앎을 획득하고, 이런 신령한 앎에 의해서 습기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이점은 반조의 명상 심리적 기반이다.

다음으로 간화와 반조의 관계이다. 보조국사가 내담자에게 자주 하는 질문 혹은 반문은 ‘이것은 무엇인가?’ ‘자신을 돌이켜 비추어보지 않고 무엇을 밖에서 찾으려 하는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온갖 행동을 필경 누가 이렇게 운전하는가?’ 이런 질문들은 본질에서 자주 회피하는 내담자로 하여금 현재 시점에서 자신의 영성을 그대로 자각해 직면하도록 돕는 질문, 곧 발문이라고 할 수 있다. 마조가 밖으로 나가는 무업을 돌려세우고는 ‘이게 무엇인가’라고 질문하는 것과 같다. 이런 질문은 내담자로 하여금 반조를 촉발하게 한다. 이것은 회피하는 내담자를 본성에 직면시키는 세 번째의 단계로서 회광반조이다.

만약에 내담자가 이것을 의심의 대상으로 삼고 애써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서 마음공부를 한다면, 이것은 곧 화두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이다. 때문에 보조국사가 직접 언급을 않고 있지만 화두(話頭)는 끝내 반조(返照)여야 한다. 반조는 습기를 제거해 진여로서 영성을 경험하게 만든다. 반조가 없는 화두는 사구로서 잘못된 길에서 해매게 한다. 단언컨대 화두의 본질은 회광반조이다. 회광반조가 없는 화두는 사랑분별하는 선병에 떨어진다. 무업의 경우처럼, 질문에 의해서 회광반조가 촉발되고, 반조가 있으면 그곳에 깨달음이 있다. 상담자가 반복적으로 질문하는 것은 내담자가 반조해 스스로 내면의 불성, 영성을 깨닫도록 돕는 것이다. 선종사에서 회광반조를 강조한 인물은 중국에서 임제·대혜·몽산 화상 등이고, 한국에서는 보조 이후로 나옹·한암 선사이다. 이점은 선종의 중요한 수행의 특징이다.



명성상담연구원장

## 세계제일 적중률을 자랑하는 구단구궁법

집중 5일완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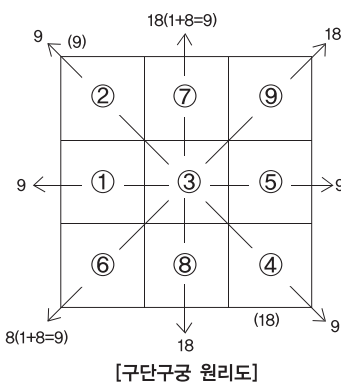
저자: 법화중현(정홍교) 크스님 직강



· 자비실천불교연합회장  
· 녹야선원장 · 불교학과교수  
· 구단구궁법 저자

### 구단구궁법

상표등록번호 : 40-0863341호  
서비스표등록번호 : 41-0213393호  
저작권등록번호 : C-2011-003967호



### \*\*\* 강의 일정표 \*\*\*

- ◆ 제1일 - 구단 구궁의 제법칙
- ◆ 제2일 - 구단구궁비결 문구해석
- ◆ 제3일 - 부교재중심 (일련의 사태 재해석)
- ◆ 제4일 - 구단구궁공신의 제법칙
- ◆ 제5일 - 구단구궁 실천감정

※ 구단구궁을 수료하신분들께 감사드리으며 이해가 부족하신 분들은 일정표에 맞추어서 재수강 하시기 바랍니다.

- ◆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지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신동법으로 미래를 예측함.
- ◆ 사찰·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 ◆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 ◆ 구단구궁으로 짚어 귀신뽑아 조상천도연계.
- ◆ 교육이수 후 즉시 영업 가능함.

### 강의

목·금·토요일  
오후 2시 ~ 5시  
상담 : 010-7415-0803

부산불교전법대학 · 대학원 - 구단구궁연구회 051)467-4665 / 010-7725-1024

출강 및 통신

2012학년도 제 21기 법사학인 신입생 모집

## 법사교육 신입생 모집

### 법사 되는 방법이 여기에 있습니다!

21년 법사양성 연륜과 함께 불교지도자인 법사자격을 여법히 갖추고 포교활동을 희망하시는 불자님을 대상으로 2012학년도 제21기 법사학인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불교법사 자격과 기회 만족을 성취하여 보십시오.**

- 1) 공익법인 한국불교법사총연합회에서 법사자격 범위증이 주어집니다.
- 2) 불교학전공 저명한 교수진으로 강의 진행됩니다.
- 3) 불교를 쉽게 이해 정립되도록 지도교육 합니다.
- 4) 특성화 교육으로 실시됩니다.
- 5) 법사품수 후 사찰, 포교원 등로서 행정상 보호받도록 지원합니다.

모집과정	· 법사과정 · 대법사과정 · 불학연구원과정 · 불교석학과정
모집학반	· 출강반 · 통신반
입학자격	· 불심이 돈독한 분 · 불교를 체계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분 · 교육수료 후 법사로서 포교활동을 희망하는 분 · 포교원 및 사찰을 개원하려는 분 · 불교지도자로서 사회에 봉사하려는 분
교육기간	· 법 사 과 정 = 1년(교과목 및 불교의식) · 대 법 사 과 정 = 2년(교과목 및 법음·법패) · 불학연구원과정 = 5년(교과목 및 참구수행) · 불 교 석 학 과 정 = 2년(교과목 및 참구수행)
교육장소	· 서울 본 대학 · 부산교육원 · 제주교육원

- ◆ 원서 교부 및 접수 : 2012년 2월 24일까지(현재 접수중)
- ◆ 원서 교부 및 접수처 : 본 대학 교무처(방문·우편·팩스·메일) 부산교육원 ☎ 051-466-1959 · 제주교육원 ☎ 064-751-1959
-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모집요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깨달음의 법(法) · 전법하는 사(師)

## 한국불교법사대학

서울특별시 종로구 전지동 110-39번지(한신빌딩3층)  
http://pubsa.buddhism.org FAX : 02)737-5305

☎ 02)733-1959  
720-1836